

# 토스뱅크, 차기수장 발표 임박 '흑자전환' 이은미 대표 연임 관심

내달 중 숏리스트 확정, 추천·공시 이 대표, 취임 첫 해 첫 '흑자전환' 작년 3분기 누적순익 136% 확대 내부직원 '횡령' 내부통제 우려도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지난해 '미디어데이'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표들이 모두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의 연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적 개선과 경영전략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연임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역량을 둘러싼 논란은 부담으로 지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차기 대표이사 숏리스트를 확정된 뒤, 평판 조화와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추천·공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임 첫 해인 2024년 457억원의 연간 순이익을 거두며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14억원으로 전년 동기(345억원) 대비 136.2% 늘었다. 분기별로는 1분기 187억원, 2분기 217억원, 3분기 411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4분기 실적까지 반영할 경우 연간 기준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대출) 포트폴리오 확대도 연임론에 힘을 실는 요소다. 이 대표는 주택 담보대출 출시 등 여신포트폴리오를 넓히고 향후 해외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전략 연속성을 위해서 연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토스뱅크는 현재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지분 투자, 합작 모델 설립, 서비스형 뱅킹(BaaS) 제공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디지털 금융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 전략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기존의 리더십 유지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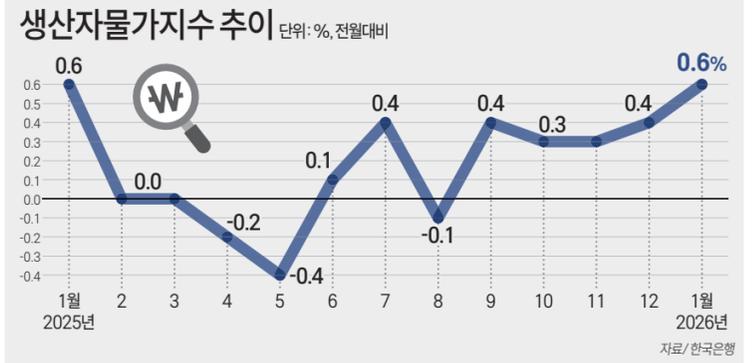
다만 내부 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은 부담이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재무조직 팀장이 27억8000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5월 30일 첫 금융사고 발생 이후 2주간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2주 뒤인 6월 13일 2차 사고가 난 이후 자체 점검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직원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해당 직원은 사망한 뒤였고, 형사 절차상 공소권이 소멸되면서 횡령 자금 일부는 끝내 되찾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실적 개선과 별개로 내부통제 역량을 보다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 단계에 접어들 만큼 수익성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며 "연임 여부는 결국 신뢰 회복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6% 상승

한은, 공산품·서비스 가격 오름세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9%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며 생산단계 물가 압력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0.7%), 공산품(0.6%), 서비스(0.7%)가 오르면서 전월보다 0.6%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 상승과 폐기물처리 하락이 엇갈리며 전월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가운데 1차금속 제품(3.0%)과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8%)가 상승했다. 서비스에서는 금융및보험서비스(4.7%)와 운송서비스(0.7%)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특수분류 기준으로 에너지는 전월 대비 1.2% 하락했다. 다만 식료품및에너지의 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 대비 2.4% 상승해 에너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근원 성격의 생산자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 KTX-수서역, SRT-서울역 '교차운행'

코레일·SR, 10% 할인권 이벤트

국도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오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예매는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현장 창구에서 할 수 있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한다. 그동안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는 SRT(410석)보다 좌석수를 2배 늘린 KTX-1(955석)을 투입해 이용객의 선택 폭을 넓힌다.

운임도 조정된다. 수서발 KTX 요금은 기존 수서발 SRT와 같지만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보다 평균 10% 저렴하다. 수서발 KTX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만큼 마일리지 적립되지 않는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안전과 불편 사항을 점검한다. 비상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이 생기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추가 인력도 배치한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을 기념하는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규제 '풍선효과'...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1금융 밀려난 대출수요자 흡수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규모 확대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늘고 있다. 새해 들어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증가하면서다. 상대적으로 규제 고리가 약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새해에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8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배나 늘었다.

2금융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곳은 상호금융권이다. 농협의 가계대출 증가분이 1억1000억원에서 1억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었다. 신협은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가계대출 취급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5000억원 감소했던 대출 규모가 지난 달 3000억원 증가로 반등했다. 연도별 1월 기준 대출 규모는 지난 2023년부터 1000억~2000억원 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3000억원까지 확대되며 증가세를 보였다. 새해 들어 금융사들이 대출 영업을 확대한 데 따른 영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금융사가 연초 영업

을 재개하고,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들어 대출 규모가 더 커진 것은 1금융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자가 2금융권으로 흡수되는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실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감 추이는 지난해 10월부터 확연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금융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10월 +3조5000억원에서 11월 +2조1000억원, 12월 -2조원, 지난달 -1조원으로 감소해 왔다.

반면, 2금융권은 지난해 10월 1조4000억원, 11월 2조3000억원으로 확대되다 12월 8000억원으로 잠시 축소되더니 다시 지난달 2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하나금융 '유아 ESG 금융교육' 나서

4~5세 아동 500명대상... 기관모집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3월 13일까지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및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 ESG 금융교육'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기 아동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 및 올바른 소비·저축 습관 형성을 돕

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나금융 100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5세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나금융은 디지털 금융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총 50개소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 수업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로봇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저축하기, 장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재미있는 미션 수행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 체득 ▲기부 활동을 통한 나눔의 기쁨 경험 ▲돈의 개념 및 소비와 절약 습관을 기르는 금융 기초 지식 습득 등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 중심의 디지털·금융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출사표

안전성·프리미엄 핵심 전략 포스코이앤씨와 수주경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다. 앞서 입찰 참여를 공식화한 포스코이앤씨와 수주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24일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한강변 입지 특성과 조합원 요구를 반영해 설계·금융·사업 조건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본 반포를 맡았던 글로벌 건축설계그룹 SMDP와 함께 진행한다. 한강변 입지 감정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신반포 19·25차 조감도 (조합원안설계). /삼성물산

디자인과 특화 평면을 통해 하이엔드 주거 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업계에서 유일한 신용등급(AA+)을 유지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금융 조건, 중단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성채리 인턴기자